

새한, 경산공장 부지 상업지역 전환

보유 부동산 처리 가속 ... 2003년 이후 부동산 처분액 5000억원 육박

새한이 워크아웃 조기졸업의 차구책으로 경산공장 부지에 고급빌라, 전문상가 등을 유치해 차입금의 상당 부분을 해소할 방침이다.

새한(대표 박광업)은 12월1일 부동산 개발 전문 컨설팅기업인 딜로이트 투쉬 기업금융과 경산공장부지 개발에 대한 컨설팅 계약을 체결했다.

새한 관계자는 “총 22만평의 경산공장 부지는 이미 1999년에 공업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됐으며, 현재 국내 유수의 건설회사들과 개발방안에 대해 협의중이어서 2004년 3월까지 투자유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산공장 부지는 주상복합단지, 고급빌라단지, 중심상업단지, 전문상가단지 등의 용도로 개발돼 투자유치 금액은 총 3000-3500억원에 이를 전망이며, 그중 대부분은 차입금 상환에 사용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 6000억원대에 이르는 차입금의 상반 부분을 해소함으로써 재무구조를 크게 개선할 수 있을 전망이다.

새한은 2003년 3월 경기도 용인시 공세리 부지 16만평에 대해 963억원의 투자유치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6월에는 경산공장 사택부지에 216억원의 투자유치 계약을 체결하는 등 2003년 한해 동안 총 1302억원의 부동산을 처분했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3/12/03>